

[종합·해설]

■ ‘한반도 대운하’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

“준비되는대로 착수하겠다”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다”

이재오 의원 “의지 확고 추진 기정 사실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논란이 거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가운데 정치권,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1일 “운하를 한다는 것은 흔들림없는 사실이다. 취임일 이후 준비되는 대로 착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운하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문제가 아니다. 이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고 공약에 대해 국민들이 이미 선택한 것이니까 바로 시작하는 것”이라며 대운하 추진을 기정 사실화했다. 이 의원은 인수위 한반도 대운하 태스크포스(TF) 상임고문이다. 인수위원회 박형준 의원의 “대운하를 추진한다는 전제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반론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 국회 건교위원인 주승용 의원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과연 대운하가 필요하냐는 문제부터 환경과, 수질오염, 경제성, 관광자원 효과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신중한 검토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뒤에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다. 주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강행할 경우 18대 국회에서 다시 첨예한 문제로 대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민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임형철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장은 “황당한 군사주의적 발상으로 함으로 어이가 없다”며 “대운하를 추진하려면 각종 영향평가와 문화재 관련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당선인이 기존에 만들어진 법을 무력화하려는 초법적 발상으

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처장은 “올해 내에 착공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 당선인이 대운하 계획을 국민 앞에 내놓고 토론을 거친 뒤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상식적이지 못한 추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당선인측 박승환 의원이 밝힌 대로 18대 국회에서 대운하특별법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법안 처리가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한나라당 내에서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법안 처리는 물론 실제 추진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시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보완되는 데, 이 당선인이 기존에 만들어진 법을 무력화하려는 초법적 발상으

측은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대운하 공약의 전문학적 비용과 환경과 괴 등을 우려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운하 추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당선자측은 신당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각계각층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국민적 동의를 구한 뒤 정책을 입안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인수위가 다음달 초 한국개발연구원과 국토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운하관련 석학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는 대운하 토론회를 개최해 찬반 여론을 골고루 경청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박형준 의원은 “모든 일을 국민적 합의 속에서 추진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 대운하 역시 그동안 제기된 우려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국내외 기술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인사 나누는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 김형오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 앞서 간사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관리 기금 ‘대수술’

중복 심각한 수준...통폐합 등 강력 구조조정 추진

이명박 정부는 정부산하 기금에 대해서도 통폐합 등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기금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약집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수와 규모의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중복기금, 유사

기금, 실익이 낮은 기금을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교수·연구원·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67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작년에 ‘기금존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기획예산처와 국회에 제출했다. 평가단은 보고서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 방송발전기금, 국제교류기금 등은 기금사업과 재원의 연계성이 떨어져 기금사업들은 다른 기금과 예산이 심각하게 중복돼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일부사업에서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며 여성발전기금, 장애인고용촉진

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고 평가단을 밝혔다. 복원기금의 사업은 일반예산의 공익사업과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아 중복·유사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본질적으로 보증대상과 업무에서 중복성이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국민경제적 비용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보와 기보의 통합 또는 업무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평가단은 밝혔다.

李 당선인, 취임전 국가원로와 회동

재정부 패심죄?

인수위, 업무보고 청취 나흘 미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전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원로급 인사들과의 연례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전 전직 대통령과 직접 만난 것은 지난 1992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번 회동 추진은 이 당선인이 차기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국민통합’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구랍 27일 노무현 대통령과 만찬을 가진 데 이어 이번엔 이달 중순에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잡히지 않았으며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도 이날 중 만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전·현직 국회의장 및 대법원장들과도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 등 이른바 ‘3김(金)’은 이날 중 모두 생일을 맞게 돼 이 당선인의 회동은 새해 인사와 생일축하를 겸한 식사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오는 11일 팔순 잔치를 맞아 자체적으로 이수선 전 총리를 비롯해 자신의 대통령 재직 시절 전직 각료 및 의원들과 부부동반 만찬 모임을 준비하고 있어, 이 당선인이 이 자리에 들 가능성도 있다고 한 측근은 전했다. /연합뉴스

재정부의 업무보고가 나흘 연기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전날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4% 성장률, 30만개 일자리 창출 전망을 내놓으며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인수위 관계자는 “내일 오후 이 당선자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는 계획이 갑자기 잡혀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며 “당초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가 같은 날이었으나 깊이 있는 보고를 위해 따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도 감안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통령 취임식 北 특사 참석 가능할까

대면 접촉 필요성 공감...성사 여부는 의견 엇갈려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특사가 참석할까.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그룹에서 다음달 대통령 취임식에 북측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이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고위급 간 대면 접촉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자 및 전문가들이 대체로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 정부관계자는 2일 향후 남북 관계 방향과 2007 남북정상선언의 이행 의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과 북한 간 고위급 특사왕래 등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새 정부와 북한이 만나서 ‘페이스 세이빙(facesaving·체면세우기)’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북한의 취임식 특사 파

견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남한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분명해진 뒤에야 북한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그러자면 특사 왕래 같은 ‘정치적 이벤트’는 성사되더라도 새 대통령 취임 후나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만약 이 당선인이 대북 강경 기조를 공식화하게 될 경우 정부 출범 후 한동안 남북간 대화 자체가 끊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

정용준 약사가 개발하고 추천하는 건강프로젝트 제1호

春, 夏, 秋, 冬

사계절체질식

“체질에 맞는 우리 먹거리가 생명이다”

■체질이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보여도 성격이나 기질, 사고, 행동방식이 서로 다르고 이는 오장육부의 강약에 의해 태어날때부터 다르게 태어나는데 이를 체질이라 한다.

■사계절 체질 건강법
농부 이계마 선생님이 일평생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관찰하여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사계절식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매년 전 우운 한성도에 해당하는 이본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계절)의 이치에 맞게 지향적으로 개발한 건강법.

❶ 봄(양성)체질
봄체질 부드러운 에너지와 함께 모든것을 잘 받아들이고 융통성이 있고 타인과 함께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

❷ 여름(화열)체질
차열하는 여름체질 빛깔과 맛을 잃기 좋아하는 옹두사미 경향이 있다.

❸ 가을(온건)체질
따가운 가을 햇살처럼 추상하고,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카리스마가 있어 타이틀을 즐기고 가려한다.

❹ 겨울(한냉)체질
전체적으로 몸이 차가워서 혼자 있으며 하고 과거에 배이는 편이다.

(주)삼현로하스
TEL. 1566-9194
병원, 한의원, 약국, 건강식품 전문점 대리점·특약점 모집
“출시 기념 선착순 100명 20% 할인”

준비중인 건강 프로젝트 : 2호 로하스 수족온욕기, 3호 건강 도자기 타일, 4호 여성건강 프로그램, 5호 체질 다이어트

전액국비수강생모집

부동산실무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2개월	매월초
	주택관리사	2개월	매월초

※ 2008년도 대비 6개월과정 특별반 집중중!
(주간반/야간반/주말반)

컴퓨터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2월 3일
	CAD	2개월	매월초
	워드실기	1개월	수시
	컴활실기	1개월	수시
	정보화기초 1,2	5주	매월초

※ 교육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교육수료후 현금
■일반인 및 대학생 수강료 특별할인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협서점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겨울방학 대 특강!! =

7,9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 교행, 교세, 관세, 감사, 법원, 검찰, 교정, 보훈, 소방, 전자, 복지, 토목, 건설, 물리, 화학

※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無等',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개강 : 1월 2일 주·야 (휴일)반 모집 (합계 2주)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 222-4560

www.kjkimyoung.co.kr 일반대/ 사범대/ 약대/ 한의대

Final Course

개강 12월 17일

문제풀이반 6주완성 | 이론과정반 6주완성

편입이란?
전문대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2학년이상 미이전, 누구나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12월 17일 개강

김영편입·PMS학원 (광주동부경협서점) ☎ 227-8088